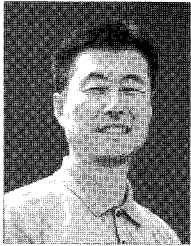


2009년 계육업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

종계업, 생산성 향상만이 살길이다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계열회사들은 주간, 월간, 그리고 연간 필요한 병아리 생산수수를 역산하여 종계입추계를 세워 생산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애기치 않은 질병감염이나 사고 또는 사양관리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계획된 병아리숫자가 생산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종계의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때는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인 경우가 많아서 병아리 공급부족현상이 생길 때는 다 같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연말부터 종계장의 생산성 저하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다. 정확한 원인이야 농장마다 계



군마다 모든 여건이 다르니 판단하기 어려우나 종계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각자의 농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유전적 요인

육종회사에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종계농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분야이다. 최근 육종회사에서는 로스종계의 경우 유전적 생산 잠재능력은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란생산수 증가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육계의 생산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육계의 성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계에서는 종란의 난중을 연간 2~3g씩 무겁게 개량하고 있다. 이것은 난중이 육계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종회사에서 계통별 디자인된 방향의 유전적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제공을 할 때 생산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

2. 영양

닭에게 주령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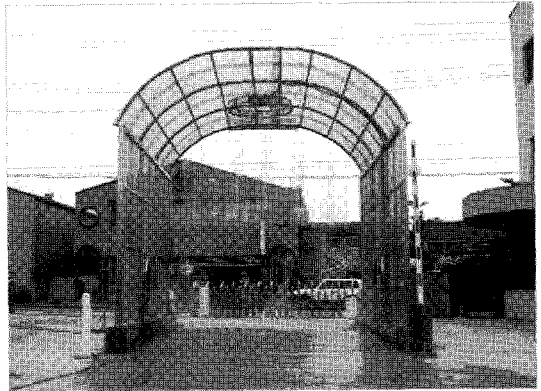
(에너지수준과 사료량)이 이루어질 때 농장에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농장에서 사료의 영양 수준을 알기는 쉽지 않다.

사료가 농장에 도착할 때마다 색깔이나 입자의 크기 등 육안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른 아침 사료급이 시 모든 닭들이 한꺼번에 급이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료섭취가 끝나는 시간을 매일 모니터링해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품종별 권장영양소 요구량에 맞는 사료를 주문 생산해 급이하는 것이 좋으며 생산된 사료의 영양수준이 적절한지 정기적인 샘플검사 실시를 권장한다.

3. 질병과 방역

농장에서는 항상 질병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일반질병이 있는가 하면 과거



에는 알 수 없었던 아니면 없었던 질병들이 생기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사이 뉴모바이러스(ORT)나 봉입체성 간염(IBH)과 닭전염성빈혈(CAV) 등과 같은 질병들이다. 이러한 질병들은 백신도 없고 만약 발병해도 대책도 없어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육성과 성계의 분리사육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단방역과 계사청소를 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CAV 같은 질병은 종계가 산란하기 전까지 반드시 양성화되어 후대병아리에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질병감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 ① 계군입추시 반드시 농장단위의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여 질병의 순환감염을 차단한다.

2009년 계육업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들

종계업, 생산성 향상만이 살길이다

- ② 모든 농장 출입자는 반드시 샤워를 실시하고 옷과 신발을 갈아 신는다.
- ③ 계사간의 출입시 반드시 신발은 갈아 신는다.
- ④ 계사의 벽면에는 철망 등을 설치해 야생조류의 입사를 방지한다.
- ⑤ 농장주위의 쥐를 구제한다.
- ⑥ 농장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과 차량은 소독을 실시한다.
- ⑦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⑧ 농장관리자들에게 차단방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4. 사양관리

유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광의의 측면에서 사양관리 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육용계 육종회사에서는 육계의 경우 계종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마다 약 60g 내외의 증체가 빨라지도록 개량되고 있다. 육종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닭의 유전적인 능력에 적절한 사양관리가 신속히 따라주지 못할 경우 아무리 좋은 계종일지라도 닭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육용종계는 산란계와 육계에 비해 체중이 무

겁기 때문에 사양관리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육용종계 성적은 64주령 기준으로 수당 120수 내외의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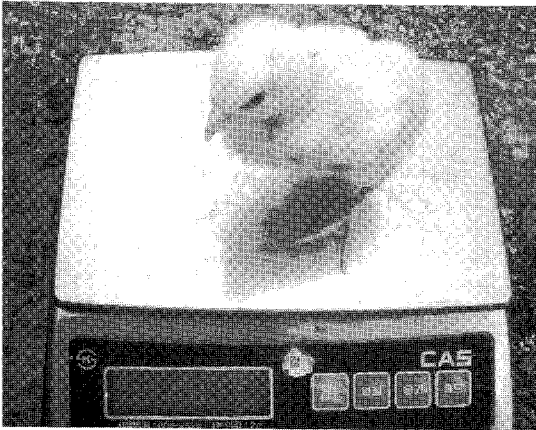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하고 같은 종의 종계로 수당 145수 이상의 병아리를 생산한다고 하는 일본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 사양관리의 차이일 것이다. 사양관리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육성기 관리

농장에서 병아리 입추부터 시작되는 육추는 육용종계 병아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출발기로 8주령까지 약 85%의 골격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의 충분한 골격을 발달 시켜야만 일생동안 생산성 향상에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기 2~3주령까지는 원종농장에서 권장하는 표준체중에 반드시 도달 또는 오버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

육추기의 사양관리 중에서 적절한 온도관리는 필수적이다. 병아리의 행동을 관찰하여 온도관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습도를 병행한 온도관리를 해야 한다. 이는 같은 온도일지라도 습도에 따라 병아리가 느끼는 열량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2~3주령까지는 사료를 조금씩 자주(매일 6회 이상) 급이해야 하며 병아리 개체의 모이주머니를 확인하여 사료섭취 정도를 점검함으로써 권장체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매주 체중측정을 실시해 표준체중에 얼마만큼 근접하면서 육성되는지 매주 점검한다. 그리고 최근 종계의 체중곡선이 과거에 비해 커진 부분을 감안하여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을철에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봄에 입춘한 계군(아웃시즌)의 경우 암실이나 무창계사에서 사육되지 않을 경우 3~4주 정도 산란이 지연되며 산란피크 성적이 좋지 않고 지속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봄 계군의 경우 반드시 빛이 들지 않도록 암실 또는 무창의 상태에서 사육하여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

나) 산란기 관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종계는 육종회사에서 브랜드별 권장하는 표준체중이 있다. 육종회사의 권장체중을 따라가는 것이 좋으나 일치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산란기에 접어들면 체중측정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2주일에 한번은 체중측정을 실시해 체중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산란율과 병행하여 사료급이량 결정을 해야만 한다.

최근의 변화된 양상은 도태할 때까지 체중이 증가하도록 사료급이량 조정을 해야 한다. 암탉의 경우 산란피크 이후 사료 감량 폭이 과거보다 적으며, 수탉의 경우 과거에는 산란피크 이후 사료증량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체중 증가를 위해 증량 급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원종계회사의 기술담당자와 협의하여 닭은 바뀌었는데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로 인한 사료급이량 보정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란은 일일 4회 이상 수거하며 수거한 종란은 신속히 소독을 실시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입란일자에 맞는 보관온도를 설정하며 규격이하의 종란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